

2012. 10. 30

Issue 분석

오바마와 롬니의 공통 종목

투자전략센터 투자정보팀

김기배 02 2020 7090 kibaehahu.kim@samsung.com

곽중보 02 2020 7032 jungbo.kwak@samsung.com

이병화 02 2020 7030 byunghwa79.lee@samsung.com

김용구 02 2020 7047 ygno.1.kim@samsung.com

create with you

삼성증권



Contents

1. 미국 대선 판세는?
2. 오마바 VS 롬니, 핵심 정책 및 주요 이슈 점검
3. 미국 대선에서 얻는 주식 투자 아이디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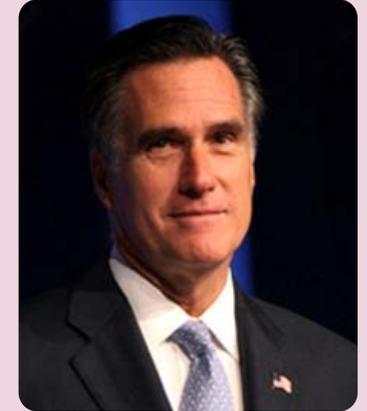
1. 미국 대선 판세는?

1) 민주당 VS 공화당: 대통령 후보와 러닝메이트



버락 오바마

- 1961년생
- 44대 미국 대통령
- 하와이 출생
-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
-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
- 2009년 노벨 평화상 수상
- 재임 중 건강보험개혁법안 통과



미트 롬니

- 1947년생
- 메사추세츠주 출생
- 메사추세츠주 주지사 역임
- 물몬교도
- 총 재산 2억5,000만달러
고소득 엘리트 계층이 주지자군



조 바이든

- 1942년생
- 44대 미국 부통령
- 델라웨어 상원의원
- 로마 카톨릭 신자
- 외교 분야 전문가



폴 라이언

- 1970년생
- 위스콘신 주 출생
-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 (2011~)
-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
노인의료보험 보조금제 대체를 주장

2) 남은 미국 대선 주요 일정

●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...

- 현직 오바마 대통령에 열세를 보였던 공화당의 롬니는 1차 TV 토론에서 선전하며 지지율 역전 성공
- 1차 TV토론의 부진에, 오바마는 3박 4일간의 2차 TV토론 준비. 2차 토론은 오바마의 역전승
- 3차 TV토론에서는 중동문제 및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. 토론 직후 실시된 여론 조사 결과 오바마 대통령 판정승

미국 대선 주요 일정

10월 3일



1차 TV 토론

- 예상과 달리 롬니는 TV 토론에서 선전
- 롬니의 지지율은 오바마를 역전

10월 11일



부통령 TV 토론

- 박빙의 승부였지만, 민주당 존 바이든 부통령의 우세로 마무리

10월 16일



2차 TV 토론

- 중산층 감세 및 부유층 증세 등 경제 비전 설파에 집중
- 청중과 질의응답을 전개해가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

10월 22일



3차 TV 토론

- 외교정책이 핵심 쟁점
- 오바마: 빈라덴 사살 등 외교적 성과 강조
- 롬니: 강한 미국 대신 외교적으로 약한 모습으로 일과한 오바마의 실정 비판

11월 6일



대통령 선거인단 선출

- 각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선출
- 승자독식제

주지사 · 상원 · 하원 선거

- 주지사 11명 선거
- 상원 1/3인 33석
- 하원 435석 전체

미국 Fiscal cliff 논의 본격화

- 미국 대통령 선거와 상 · 하원 선거 종료 후 Fiscal cliff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

12월 17일



대통령 선거인단 투표

- 11월 6일 선출된 선거인단의 형식상 투표

2013년 1월 20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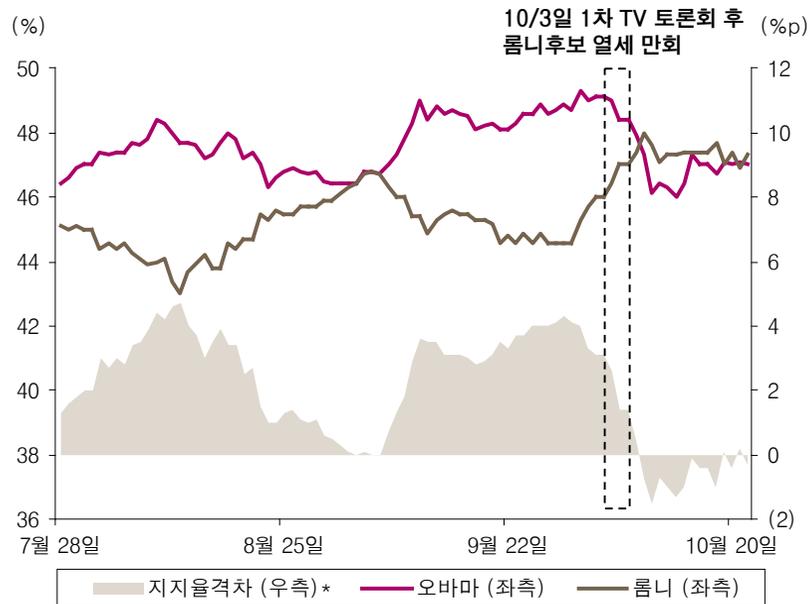


제 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

3) 오바마와 롬니, 지지율과 선거인단 확보 모두 박빙(薄氷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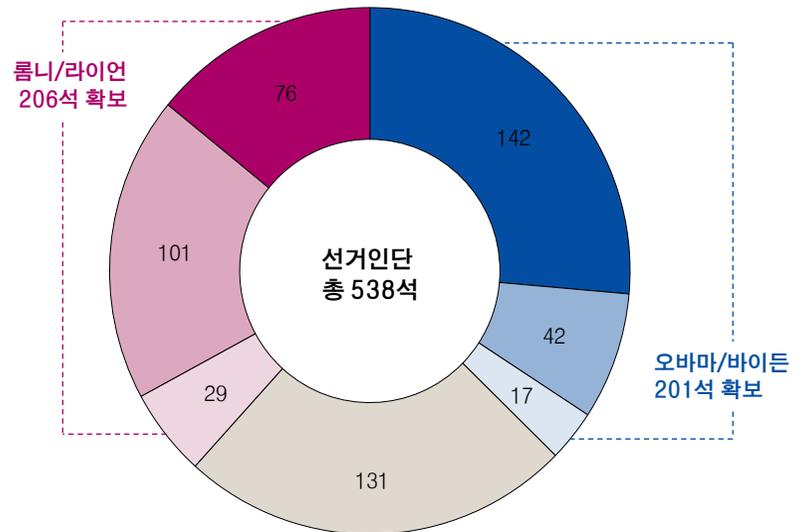
- 롬니는 1차 TV 토론의 선전에 힘입어 그간의 열세 만회
 - 10/22일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과 선거인단 모두 백중지세

오바마 · 롬니 지지율은 호각지세



참고: 2012년 10월 22일 기준
자료: RCP(Real Clear Politics)

선거인단 확보도 박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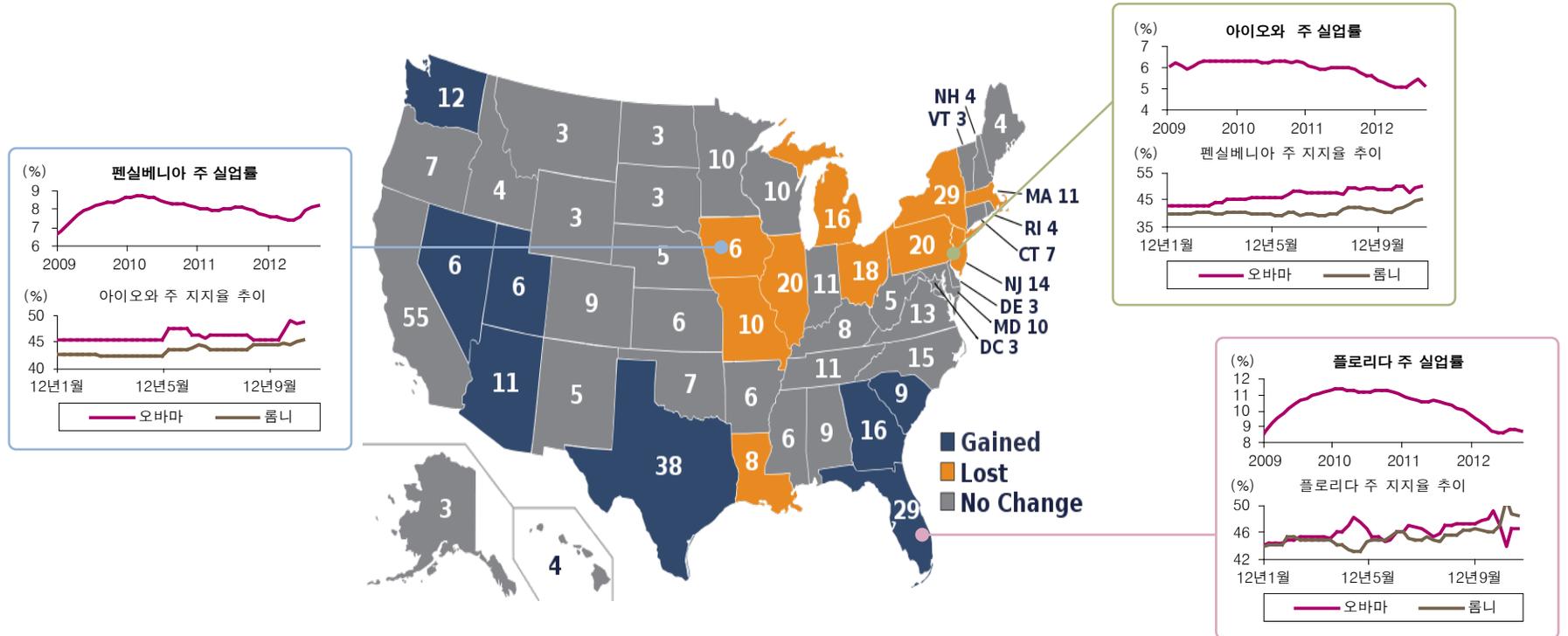


참고: 2012년 10월 22일 기준. 짙은 색은 지지성향 확고, 옅은 회색은 부동 의석수
자료: RCP(Real Clear Politics)

4) 대선 결과를 결정지을 주요 Swing States

- 10개 부동층주 중, 승부처는 선거인단이 많은 플로리다(29명), 펜실베이니아(20명), 오하이오(18명) 세 곳
 -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세 곳을 모두 승리하며 존 메케인 공화당 후보를 제압
 -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둔화되며 부동층주 세곳의 실업률은 오바마 집권 초기부터 상승 : 실업률은 1·2차 양적완화 등 경기부양책 실시로 하락했으나,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확산되며 재상승
 - 각 주별 지지율은 아이오와 · 펜실베이니아 오바마의 소폭 우위. 플로리다는 롬니가 역전에 성공

각 주 선거인단 수와 주요 부동층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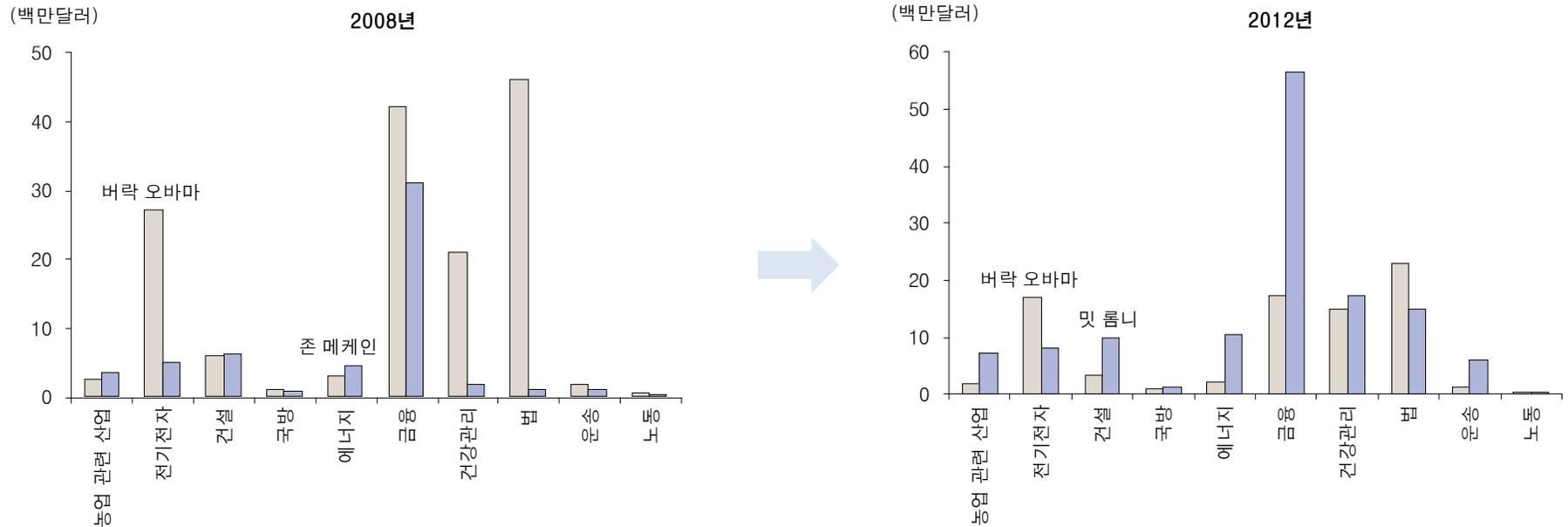


참고: 2012년 10월 24일 기준
 자료: RCP(Real Clear Politics)

5) 2008년과 2012년 정치 후원금 변화 양상

- 전통적 민주당 지지세력인 월스트리트의 IB는, 올해 대선에서 공화당 지지로 입장 선회
 - 오바마는 집권 기간 중, 금융위기 이후 월가의 투자은행을 규제하기 위해 금융개혁안 Dodd-Frank 법 제정. 반면 롬니는 Dodd-Frank 법안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. 금융 규제 완화 기대감에 월가 IB는 롬니 지리로 입장 선회

2008년과 2012년의 산업별 선거 캠프 후원 현황 변화



자료: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

2. 오바마 VS 롬니, 핵심 정책 및 주요 이슈 점검

- 1) 오바마는 제2의 루즈벨트가 될 수 있을까?
- 2) 롬니 당선시, 금본위제 도입 가능할까?
- 3) 두 후보의 주요 정책 비교
 - 경제 및 조세정책 / 의료보험 / 에너지 및 금융

1) 오바마는 제2의 루즈벨트가 될 수 있을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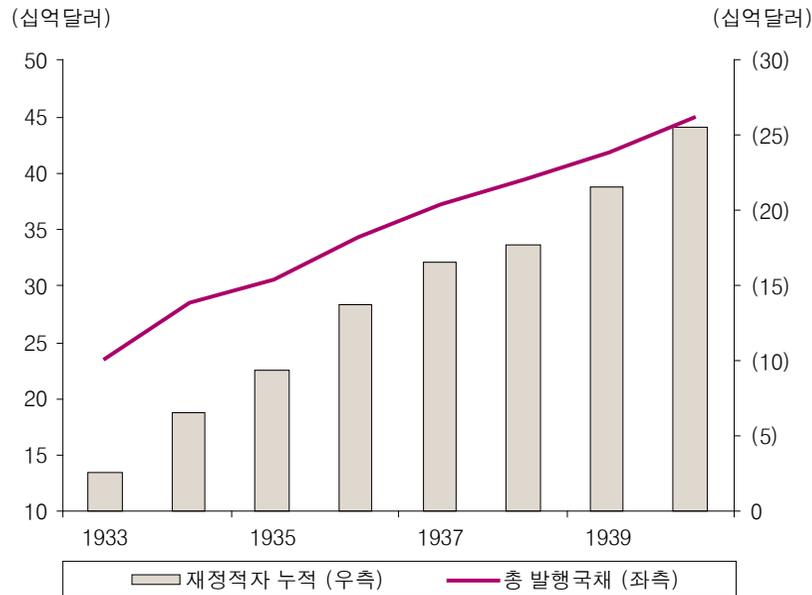
- **오바마의 롤모델은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**

- 루즈벨트는 대공황의 위기를 케인즈 유효수요 창출 이론에 기반한 뉴딜정책으로 극복
- 루즈벨트는 대공황의 원인을 부의 편중과 소득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국민의 구매력 저하 및 과소 소비현상에서 파악

- **뉴딜정책은 전·후기로 구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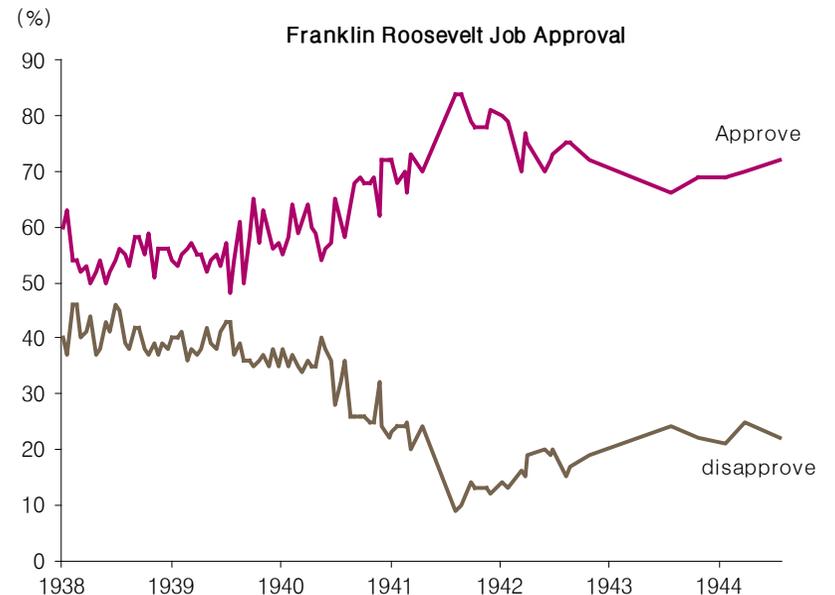
- 전기 뉴딜정책이 연방긴급구제국을 중심으로 직접구제와 경제회복에 치중했다면, 후기 뉴딜은 다양한 문화사업과 공공사업촉진국을 중심으로 한 SOC 투자 등 일자리를 창출하는 간접구제 추진 및 노동·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중점
- 루즈벨트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부담하는 뉴딜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압도적 국민의 지지

뉴딜정책 추진을 위해 이중예산제* 채택



참고: * 이중예산제는 일반지출은 경상지출을 통해 충당, 긴급지출은 차입금에 의해 조달
 자료: 미국 뉴딜정책의 진행과정 및 평가, (경제정책비서관실, 2007.4.10)

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확고해진 루즈벨트의 지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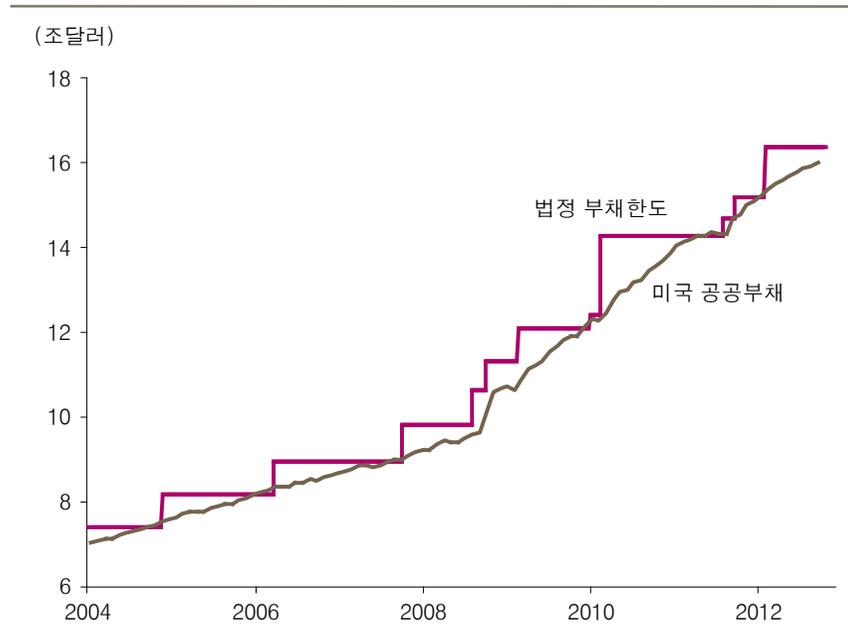


자료: Gallup

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든 오바마의 정치 환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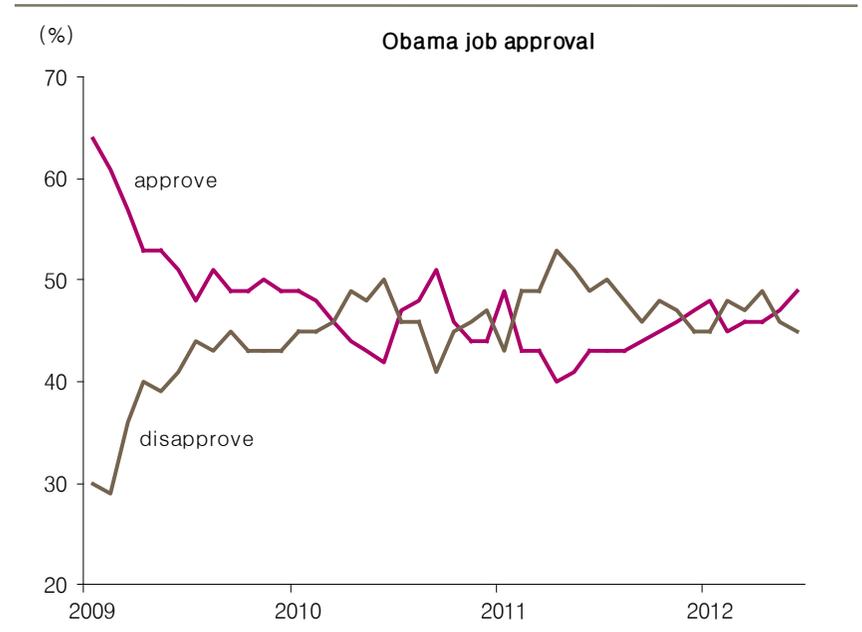
- **오바마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에 성공**
 - 오바마는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 상황에서 미국 경제를 구제하기 위해, 재정·통화정책 등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
 -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미국 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났지만, 정부 재정상황은 악화일로
- **오바마의 향후 경제적 과제는 루즈벨트와 동일. 일자리 창출 및 부의 편중 축소, 의료건강개혁법안 등 사회복지 개혁에 집중**
 - 오바마가 연임에 성공한다면, 자신의 첫 번째 집권 기간 심화된 미국 사회 내부 구조적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둘 것
 - 루즈벨트는 의회 장악 및 국민지지를 배경으로 집권 기간 중 강력한 리더십 발휘. 반면 오바마의 지지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 : 하원에서 공화당의 우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, 오바마의 지지율도 집권 초반에 비해 약화된 상황
 - 따라서 오바마가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

내년초 다가올 정부부채 한도 증액 문제



자료: Bloomberg

오바마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취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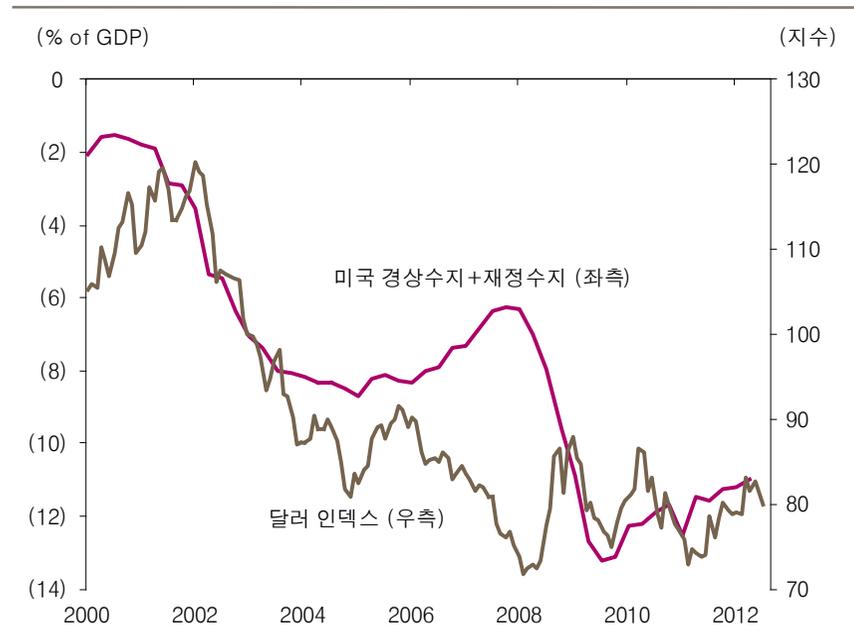


자료: Gallup

2) 롬니 당선시, 금본위제 도입 가능할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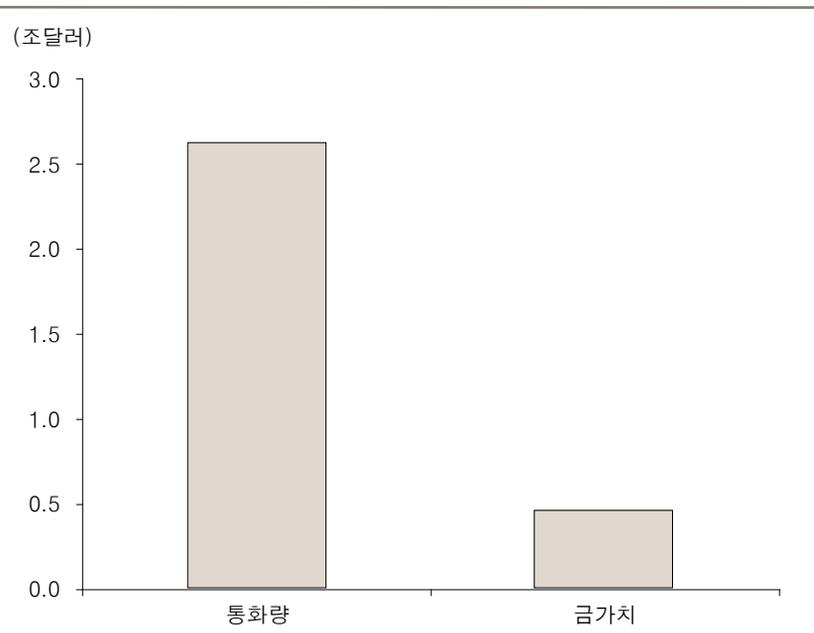
- 롬니는 달러화에 고정가치를 설정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위원회 설치를 정책강령에 적시
 - 이는 사실상 금본위제 부활을 의미. 미국 재정적자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, 시중에 달러를 푸는 양적완화를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
- 그러나 금본위제 도입 가능성은 제한적
 - 10월 기준 미국의 통화량은 2조 6,200억 달러인 데 비해 중앙은행 금 보유량은 2억 6,100만 온스에 불과. 만약 금본위제가 시행된다면 금값은 약 1만 달러에 맞춰져야 함(달러가치 하락). 10월 22일 기준 금값은 1,728달러로 괴리도가 큰 상황
 - 따라서 롬니가 승리하더라도 금본위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제한적

미국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추이와 달러 인덱스



자료: Bloomberg

미국 통화량과 중앙은행 보유 금 가치의 괴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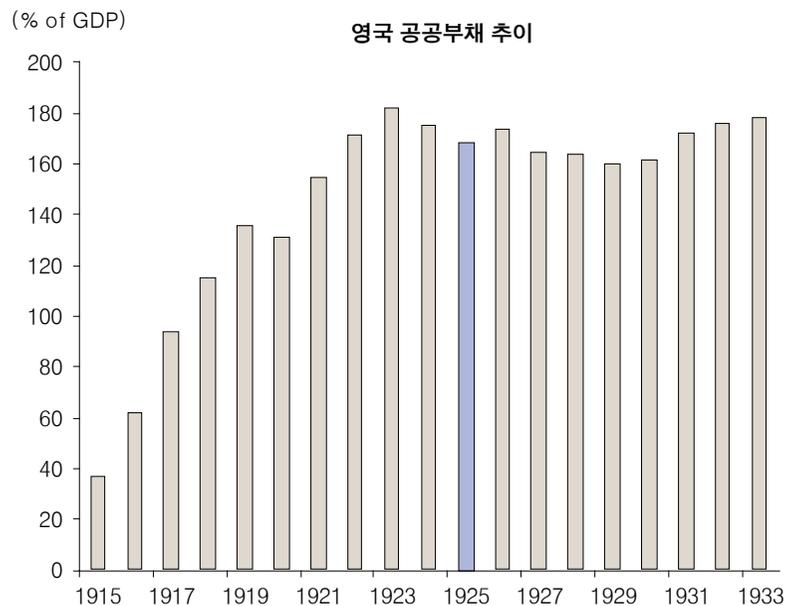


참고: 통화량은 10월 본원통화 기준. 금가치는 미국 중앙은행 8월 보유분을 10월 22일 기준 금값과 곱한 값
자료: Bloomberg

금본위제 도입보다는 FRB 견제 의미로 해석

- 1920년대 금본위제를 도입한 영국의 GDP 대비 부채 비중은 오히려 증가
 - 1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은 GDP 대비 비중이 140%까지 올라간 공공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25년 금본위제로 회귀
 - 그러나 영국의 GDP 대비 부채비중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. 금융 대공황으로 1928년 영국의 실질 GDP가 1918년 보다 오히려 감소하였고, 화폐가치 고정으로 수출 둔화 및 실업률 상승이 부가되면서 영국정부는 1931년 금본위제를 폐기
- 금본위제 공약은 FRB 행보에 제동을 거는 제스처로 판단
 - 지난 9월 FOMC에서도 공화당 지도부는 벤 버냉키 의장에게 추가 부양책은 더 이상 안된다고 경고
 - 롬니가 당선된다면 국회감사 실시 등 비둘기(Doves) 성향이 우세한 FOMC를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

1920년대 금본위제를 부활한 영국의 사례



자료: HM Treasury

비둘기 성향이 우세한 FOMC 구성

2011년	2012년
<비둘기파>	<비둘기파>
벤 버냉키 의장	벤 버냉키 의장
윌리엄 더틀리 뉴욕 연은 총재	윌리엄 더틀리 뉴욕 연은 총재
대니얼 타볼로 이사 대니얼 타볼로 이사	대니얼 타볼로 이사
재닛 엘런 이사(부의장)	재닛 엘런 이사(부의장) 산드라 피아날토
<매파>	<매파>
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	제프리 래커
리처드 피셔 델러스 연은 총재	
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	
<중립>	<중립>
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	엘리자베스 듀크 이사, 데니스 록하트, 존 윌리엄스, 새라 래스킨 이사
엘리자베스 듀크 이사, 새라 래스킨 이사	<새 연준이사> 중립 또는 비둘기 성향 추정 Jeremy C. Stein (제레미 스타인) Jerome H. Powell (제롬 파월)

자료: FRB, 각 언론사 자료

3) 두 후보 정책 비교 ① 경제 및 조세정책

- **오바마 행정부는 정부 개입에 의한 큰 정부를 지향 VS 롬니는 정부 개입 최소화를 위한 작은 정부 지향**
 - 조세 부문: 오바마는 부유층을 제외한 감세 VS 롬니는 모든 계층 감세

2012년 미국 대선 주요 정당 후보들의 경제 및 조세 공약 차이

	오바마 대선공약(민주당)	롬니 대선 공약(공화당)
경제 (정부예산)	<p><정부의 개입 중요></p> <p>정부지출 GDP 비중 22.5% 2020년 federal debt/GDP 77%</p> <p>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소득의 증가(조세인상), 정부지출의 축소(국방과 비국방 부문)를 주장. 반면 예산통제법 발효에 따른 2013년 정부지출 자동삭감에는 반대</p> <p>국방부문: 2013년 국방부문 지출 자동 삭감안 폐지 국방관련 지출을 향후 10년간 약 4.870억 달러 삭감 예정</p>	<p><Smaller Government></p> <p>정부지출 GDP 비중 20%로 고정 국방부문 최소지출 GDP 비중 5% Federal debt / GDP 약 86% (75~94% 범위)</p> <p>비국방부문 지출 5% 즉시 삭감 연방정부 인력 10% 삭감. Health care reform 폐지 공기업의 민영화(Amtrak 등), 계획된 지원 예산 삭감 국가예술지원기금 및 공영방송 기관과 대외원조 축소</p> <p>국방 부문 지출 GDP내 지중 최소 4% 이상</p>
조세	<p>불공평하고 복잡한 조세제도를 간소화 및 재조정 누진세율을 무시 행정부 조세감면 제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</p> <p>개인: 오바마 행정부는 middle class와 working class의 세금은 인상하지 않음. 반면 부유층에 대해서는 Bush 행정부 이전의 세율을 적용</p> <p>2010년 health care 법에 따른 추가 세금까지 감안하면 부유층의 세율은 43.4%까지 증가</p> <p>법인: 법정 법인세율 35%→28%로 인하</p>	<p>롬니 후보는 무시 행정부의 조세감면 정책 연장을 추진</p> <p>개인: 부유층 등 모든 계층에 대한 세율 인하를 단행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세를 현행 15%로 유지. 연간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세 폐지</p> <p>법인: 유효법인세 35%→25%로 인하</p>

자료: 삼성증권 정리

②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과 오바마케어 (Obamacare)

- 오바마 연방정부 통제 VS 롬니 개인 재량권 중시

- 오바마는 건강보험개혁법안 등 의료보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. 반면 롬니는 건강보험개혁법안의 즉시 폐지 및 개인재량권 유지와 주별 관리를 주장

2012년 미국 대선의 주요 정당 후보들의 의료보험 정책 차이

	오바마 대선공약(민주당)	롬니 대선 공약(공화당)
의료보험	<p><연방정부 통제에 의한 의료보험 혜택 확대></p> <p>2010년 3월 민주당은 개인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건강보험개혁법안(Affordable Health Care) 통과.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에 의해 합헌성이 결정</p> <p>새로운 의료기록 전산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 절감 추진 민간의료보험으로의 이양에는 반대</p>	<p><개인 재량권 유지하는 가운데 연방정부 보조></p> <p>건강보험개혁법안(Affordable Health Care Act) 폐지를 주장 연방정부 산하의 관리가 아닌 각 주별 관리를 주장</p>
Medicare*와 사회보장제도	<p>Medicare: 2014년까지 빈곤층 소득의 133%에 해당하는 가계까지 혜택 범위 확대</p> <p>사회보장제도: 은퇴연령 연장 및 혜택비율 CPI 상승률 연동으로 재정건정성 확보 추진</p>	<p>Medicare: 적용대상 연령을 상향. 개인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원하면 정부가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</p> <p>사회보장제도: 은퇴연령 연장. 공화당과 tea party(공화당 내 보수주의 유권자 단체)는 현행 제도 관련 정부지출이 연방정부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</p>

자료: 한국은행, 삼성증권 / * 미국의 노인의료보험제도

③ 에너지 및 금융

- 양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데 초점
 - 오바마 대통령은 녹색연료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를 도모. 반면 롬니는 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회귀 및 원자력 발전소 증강에 중점
- 금융관련 규제에서는 Dodd Frank 법안 폐지 여부에 관심 집중
 -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위험 투자를 규제하기 위해 Dodd Frank 법안을 제정. 롬니 후보는 상기 법안 폐지를 주장

민주당과 공화당의 재정정책 차이

	오바마 대선공약(민주당)	롬니 대선 공약(공화당)
에너지	<p><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녹색연료와 바이오 에탄올 연료를 지지 2) 2035년까지 80%의 전기 사용량을 클린 에너지로 대체할 계획 (2008년 제시한 25%보다 높아진 수치) 3) 향후 10년간 400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·가스 기업의 세금 우대 조치를 삭감 예정. 하지만 재생 에너지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는 지속 	<p><친(親)화석연료 노선></p> <p>에너지 개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 제한. 석유 시추 허용 등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들의 자율적 활동 허용</p> <p>원자력 발전소 증강을 통해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독립을 추진</p> <p>롬니는 작은 정부를 추구. 기업 규제 완화, 환경 규제 수준 완화, 그리고 정부 보조금 축소를 제안</p> <p>Clean Air Act 아래 있는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권한 폐지를 주장</p>
금융	<p>집권 기간 동안 월가 개혁을 위해 Dodd Frank 법안을 제정</p>	<p>기업의 소유구조, 경영자 포상, hedge fund, PEF, 강화된 OTC 파생상품, ABS, 그리고 신용평가사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Dodd Frank 법안을 폐지</p>

자료: 삼성증권

3. 미국 대선에서 얻는 주식 투자 아이디어

- 선거 결과에 따른 투자전략

- 1) 오바마 연임 성공시 - 제네릭 의약품 ·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
- 2) 롬니 승리시 - 원자력 발전 · 자원개발 관련 종목
- 3) 일자리 창출은 공통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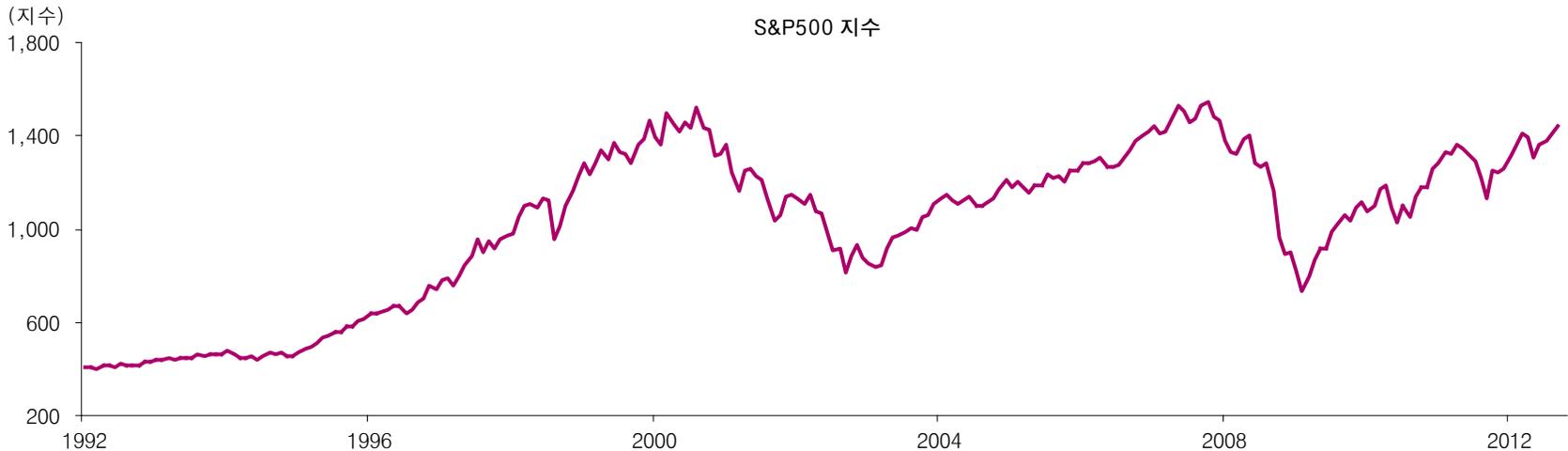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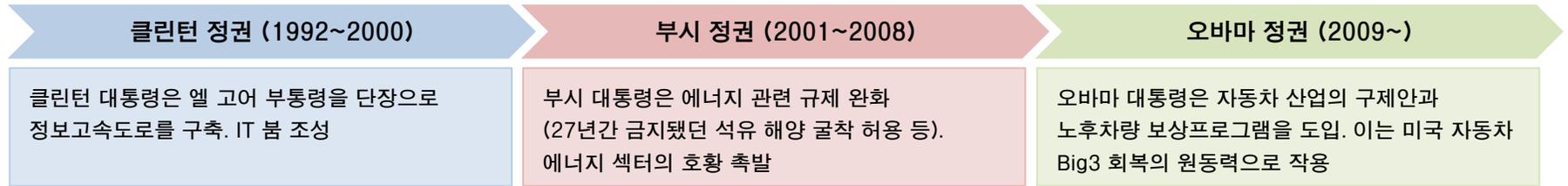
과거 정권의 정책과 주식시장

- 과거 정권의 정책 변화는 주식시장(업종)에 많은 영향을 미침

- 과거 정권의 정책에 따라 수혜 업종이 발생. 업종별 수익률 차별화를 유발

- 1) 클린턴 집권기 IT 업종, 2) 부시 집권기 에너지 섹터, 3)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경기소비재(자동차) 업종의 수익률 차별화

미국 과거 정권들의 정책과 S&P 500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삼성증권

2012년 선거 결과에 따른 주식 투자전략

• 차기 미국 대통령의 시대적 의무는 일자리를 창출!

- 오바마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와, 롬니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수혜 업종은 상이
- 미국 실업률은 8%대에서 정체되어 있고, 고용시장 부진과 장기 실업자 증가로 경제활동참가율은 31년來 최저수준 따라서 차기 행정부의 핵심 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

1) 오바마 (민주당) 승리시

- 큰 정부/정부의 개입 중시
- 연방정부 중심의 의료보험개혁
- 신재생에너지 중심 육성
- 금융개혁법안 유지
- 수혜 업종: 제네릭 의약품, 신재생에너지



2) 롬니 (공화당) 승리시

- 작은 정부/주정부 권한 강조
- 의료보험제도 개인의 재량권 중시
- 기존 화석 연료 중심+원자력 발전
- 금융개혁법안 폐지
- 수혜 업종: 원자력 발전, 자원개발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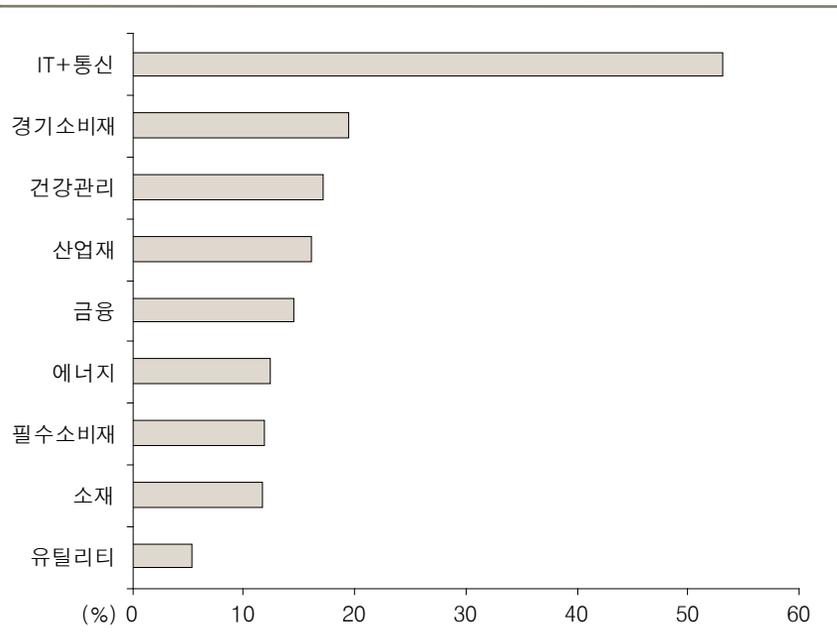
3) 공통과제: 일자리 창출!

- ① Made in America, Again!
- ② 주택 경기 활성화!
- ③ 셰일가스 혁명!

1) 오바마 연임 성공시 - 제네릭 의약품 ·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

- 민주당 집권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IT · 헬스케어(건강관리) 업종이 강세
 - 민주당 집권 기간 동안 IT 버블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. 정책적으로 IT 및 헬스케어(건강관리) 업종에 유리한 포지션을 취해옴
- 오바마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의료제도 개혁 및 신재생에너지 수혜주에 주목
 - 오바마 행정부는 제네릭의약품에 관한 규제 완화 및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확대시켜 국가의료제도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을 추진할 계획
 -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개선, 천연가스 개발에 주력하여 Green Jobs 창출 비전을 제시

S&P 500 업종별 평균 수익률: 민주당 집권 시기



참고: 1990~2011년 (2000, 2008년 제외)
자료: Bloomberg

오바마 승리시 정책적 수혜 종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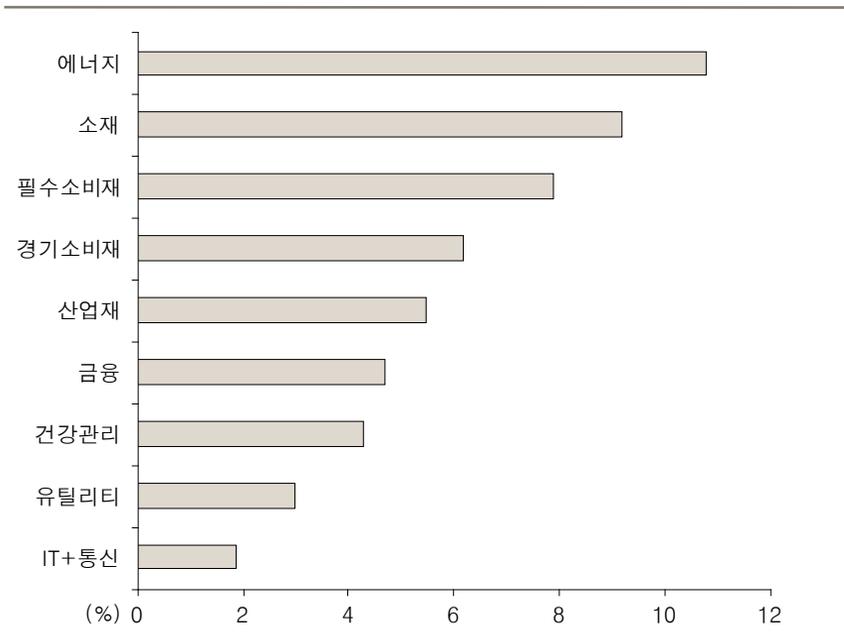
구분	종목명	PER (배)	PBR (배)	ROE (%)
제네릭 의약품	한미약품*	n/a	2.7	n/a
	유한양행*	27.8	1.6	6.5
	종근당*	12.7	1.1	8.8
신재생에너지	삼성SDI	10.7	1.0	9.7
	LG화학	13.2	2.0	15.7
	포스코케미칼*	10.0	2.1	22.8
	일진전기	31.1	n/a	1.7

자료: 삼성증권 / 2012년 예상치 기준 / *는 K-IFRS 별도 기준

2) 롬니 승리시 - 원자력 발전 · 자원개발 관련 종목

-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에너지 · 소재 업종이 강세를 보임
 -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집권 기간 에너지 관련 규제를 완화(27년간 금지했던 석유 해양 시추 허용). 이에 에너지 섹터는 상승
- 롬니 후보 승리시, 국방 · 에너지 · 금융 업종 수혜 예상
 - 미국내 화석 연료 매장량 재조사, 주정부의 석유시추권환 확대, 원자료 발전소 증강을 통해 일자리 300만개 창출 및 2020년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제시
 - 또한 금융 규제 법안인 Dodd Frank 법안 폐지는 금융 업종에 수혜가 될 것으로 기대
 - 미국의 친(親)화석연료 정책으로 석유 · 석탄 광구를 보유하고 있는 자원개발 상사주 수혜 기대

S&P 500 업종별 평균 수익률: 공화당 집권 시기



참고: 1990~2011년 (2000, 2008년 제외)
자료: Bloomberg

롬니 승리시 정책적 수혜 종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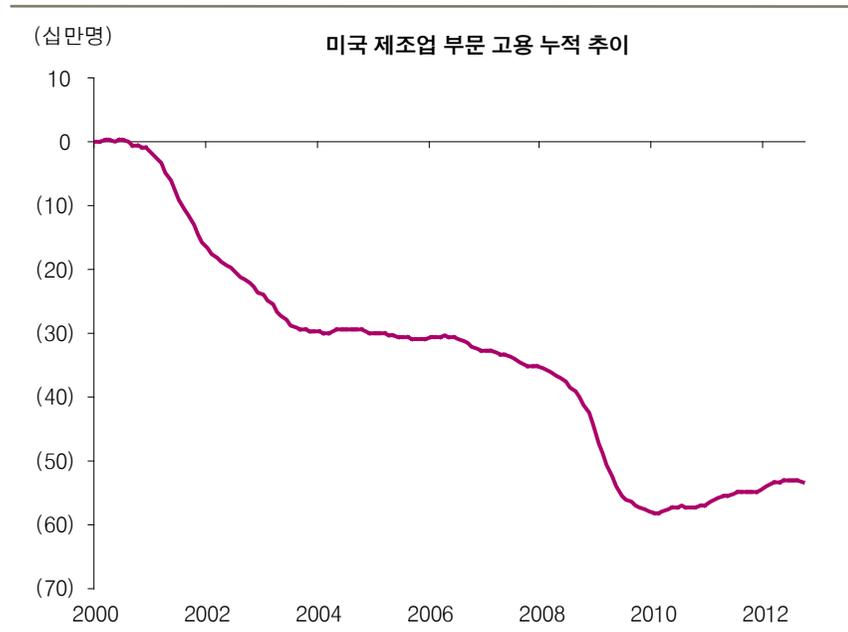
구분	종목명	PER (배)	PBR (배)	ROE (%)
원자력 발전	한전기술*	18.7	5.7	32.3
	세아베스틸*	6.4	0.7	11.1
	S&TC*	10.3	0.7	6.9
자원개발주	LG상사	8.3	1.0	12.9
	SK네트웍스	11.6	0.7	6.0
	대우인터내셔널	22.9	2.0	9.4

자료: 삼성증권 / 2012년 예상치 기준 / *는 K-IFRS 별도 기준

3) 일자리 창출은 공통과제 ① Made in America, Again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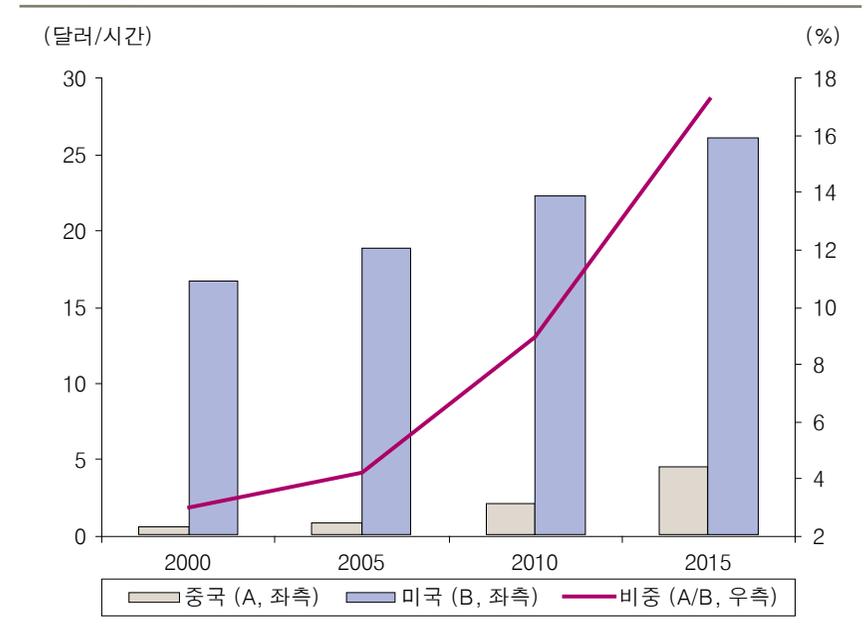
- 1990년대 이후 중국이 글로벌 산업체제에 편입되며, 미국은 제조업체의 생산시설을 중국으로 이동
 - 미국 내 제조업 부문 고용자수는 2000년 이후 빠르게 감소. 이는 미국과 중국 제조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차에서 비롯된 결과
- 2000년 이후 중국의 시간당 임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, 비용측면에서 중국의 상대적 우위는 감소 중
 -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2015년도에는 중국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미국의 약 17%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

2000년대 사라진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중국으로



자료: Bloomberg

중국과 미국 제조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비교



참고: 2015년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 예상치
 자료: 미국 노동부, EIU, BCG

Outsourcing에서 Reshoring으로 전환 (일자리의 미국 회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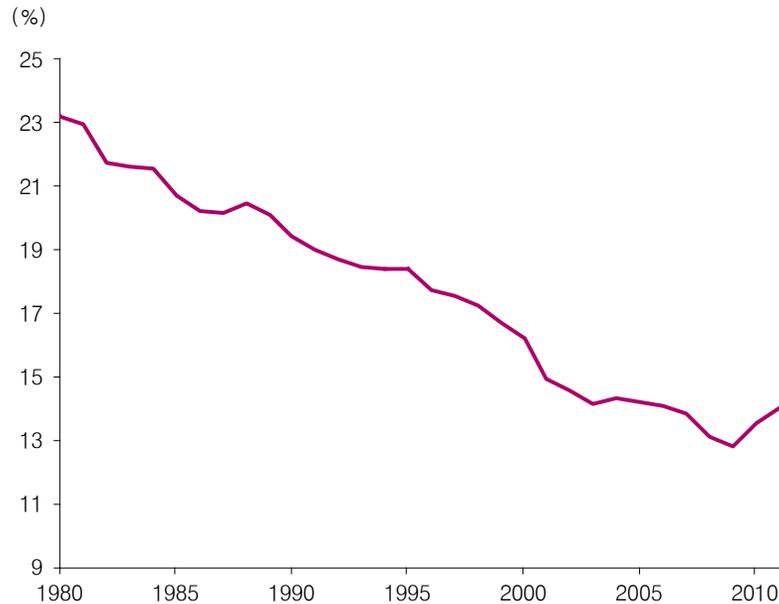
- **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**

- 독일 · 한국 등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이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나면서, 미국 등 서비스업 중심의 국가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부각
- 오바마 행정부는 법인세 인하 및 해외 생산시설 국내 이전 기업 지원 등의 제조업 육성책을 추진
- 공화당 롬니도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및 세금 감면 등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

- **제조업의 부활은 다른 산업의 간접적인 고용도 유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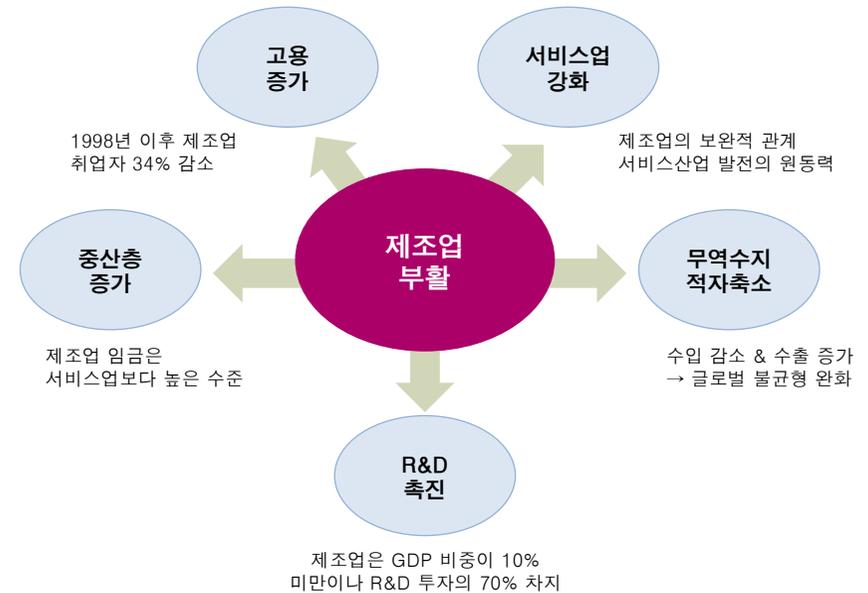
- 제조업 확대로 1) 고용증가, 2) 중산층 증가, 3) R&D 촉진, 4) 무역수지 적자 축소, 5) 서비스업 강화 등의 효과 기대

미국 GDP에서의 제조업 비중은 2009년 이후 반등



자료: Bloomberg

미국, 제조업 부활에 따른 기대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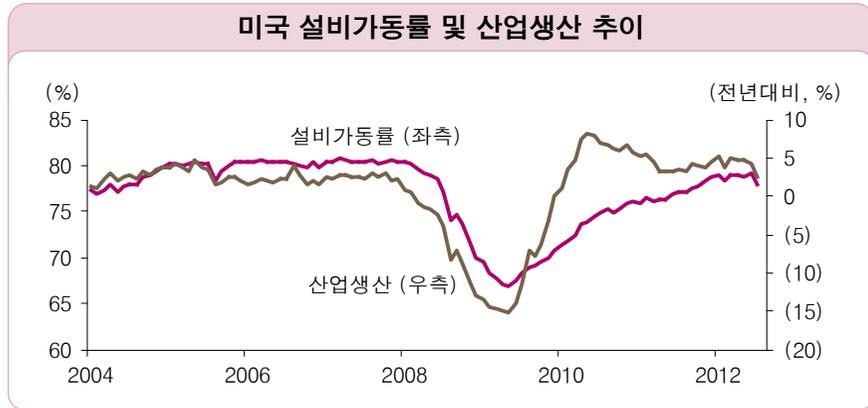


참고: KB daily 지식 비타민 "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경제적 의미" 재인용
 자료: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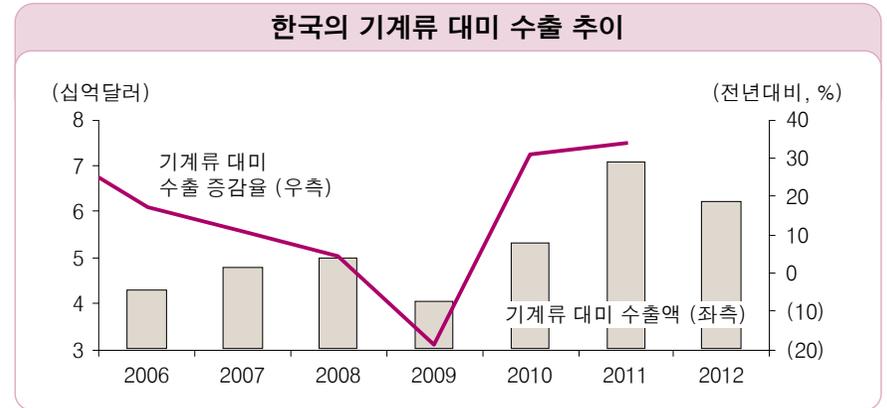
투자 아이디어: 한국 기계 · 설비 업종에 주목

● 미국 제조업 부활은 한국 기계 · 설비 업종 수혜로 연결

-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산업생산이 정상화되면서, 미국 내 제조업 생산시설과 신규설비에 대한 투자가 증가. 따라서 2010년 한국의 對美 기계 및 정밀기기 수출은 크게 증가
-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 및 제도를 마련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. 따라서 미국 제조업의 부활은 한국의 기계 · 설비 업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



자료: Bloomberg



자료: 관세청, 삼성증권

분류	종목	주요 사업 내용
미국 설비 투자 수혜주	현대위아	현대차 미국 앨리바마 공장 설비 확충 수혜. 자동차 부품 이외 산업기계 · 항공 · 특수기계 글로벌 경쟁력 확대 중
	와이지-원	절삭공구 전문 제조 기업으로 미국 설비 투자 확대 시 미국 매출 비중 증가 전망. 현재 미국 수출 물량 증가세 지속
	일진다이아	공업용 다이아몬드 글로벌 TOP 3 업체. 미국 채굴 장비용 수출 증가로 외형 성장 및 실적 모멘텀 부각
	디케이락	계장용 필팅 밸브 전문 업체. 최근 미국 등 북미向 자원개발용 밸브 수출 증가 본격화 및 실적 모멘텀 보유
	동일금속	대형 건설기계 하부체 부품 전문 기업. 미국向 크롤러 크레인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며 실적 안정성 지속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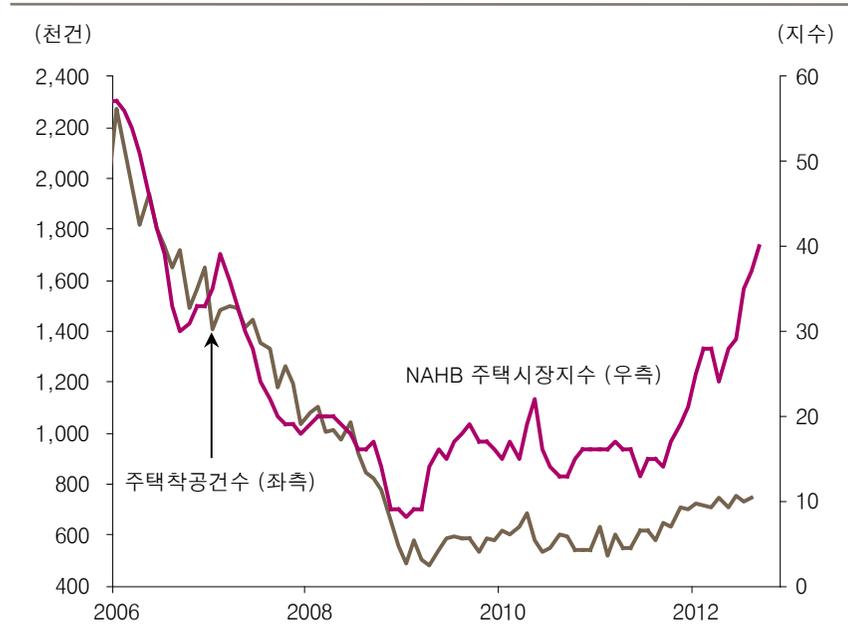
자료: 삼성증권

② 미국 주택 경기 활성화!

●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 주택시장의 회복 시그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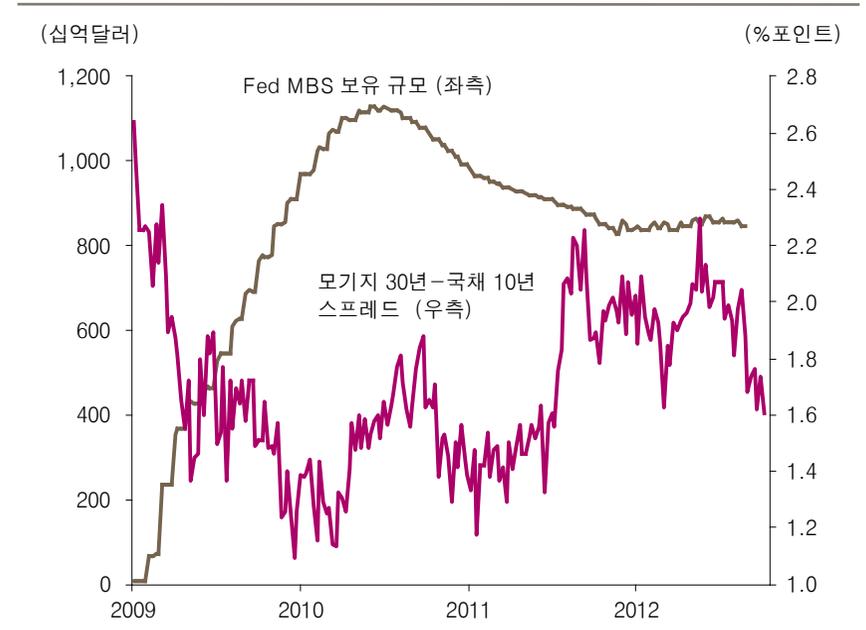
- 주택 주요지표들은 빠르게 개선되면서, 미국 주택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 실질적 회복국면에 진입
- 연준의 모기지 자산을 매입대상으로하는 3차 양적완화(QE3) 실시로, 모기지 금리의 스프레드가 축소된다면 주택 경기 회복은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

주택경기는 반등 구간에 진입



자료: Bloomberg

QE3의 주요 정책목표는 모기지 금리의 스프레드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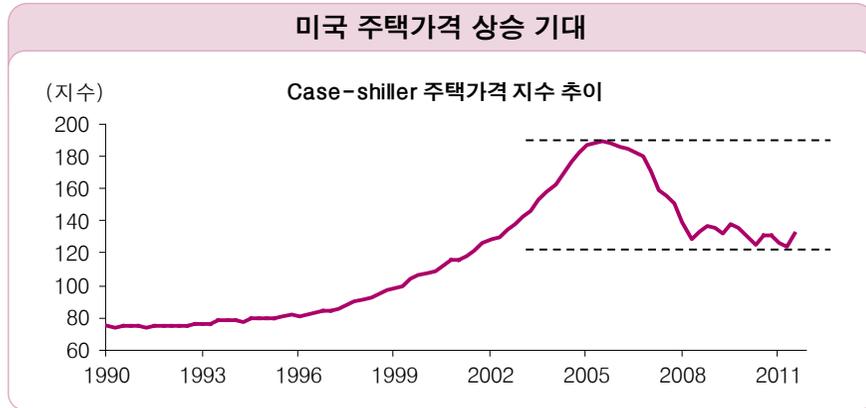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Federal Reserve

투자 아이디어: 美 주택 경기 활성화 수혜주

● 미국 주택가격 상승은 소비활성화로 연결

- 주택가격은 2006년 고점에서 6년간 하락한 이후, 올해 상승반전. 미국 주택관련 주요 기업의 주가 역시 주택 가격회복 기대를 반영하며 상승
- 주택가격 반등이 지속될 경우 일반 가계가 보유한 주택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른 자산효과(Wealth Effect)로 소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



자료: Thomson Reuters



자료: Bloomberg

분류	종목	주요 사업 내용
주택 경기 활성화	두산인프라코어	주택착공건수 회복 및 부동산 가격 반등세 등 미국 주택경기 회복 본격화 시 DII(밥켓) 실적 턴어라운드 본격화 전망
	진성티이씨	굴삭기용 롤러 전문 제작 업체. 캐터필러向 매출 비중 증가로 미국 텍사스 공장 건설 중으로 성장 및 실적 모멘텀 보유
	경동나비엔	미국 온수기 시장 점유율 2위 업체. 미국向 신제품 출시에 따른 미국 수출 증가 및 실적 모멘텀 본격화 기대
	LS	미국 SP5X인수로 미국 건설 경기 회복 시 전선 수요 증가 수혜. LS산전 미국 법인 설립으로 미국 시장 진출 확대 전망
소비 회복	삼성전자	미국 소비 회복 시 IT수요 증가 수혜. 미국 내 스마트폰 경쟁력 확대로 견조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
	현대글로벌비스	현대차그룹 물류전문기업. 현대차그룹內 해상 운송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 미국 수출 증가 시 수혜 전망
	한진해운	미국 주택 경기 회복 시 미주 노선 물동량 증가 본격화 기대 및 미주 운임 추가 상승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가시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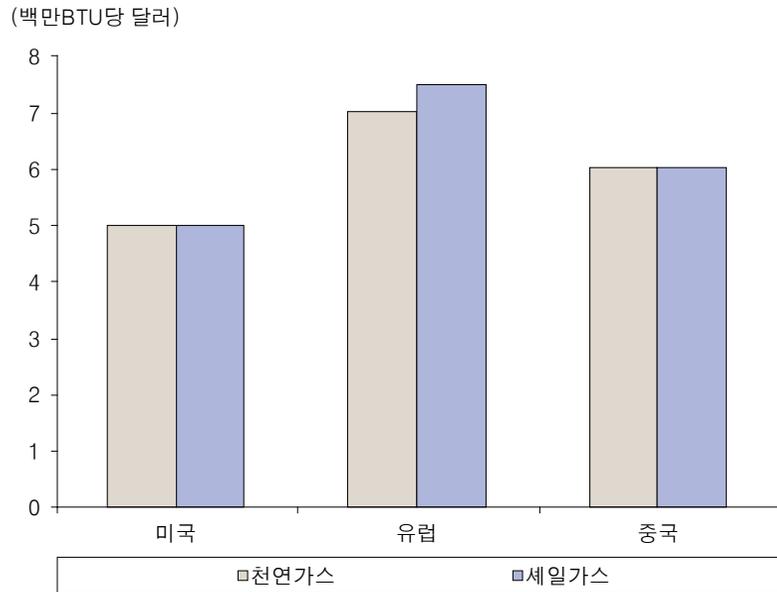
자료: 삼성증권

③ 셰일가스 혁명!

● 셰일가스 개발로 에너지 부문 성장 본격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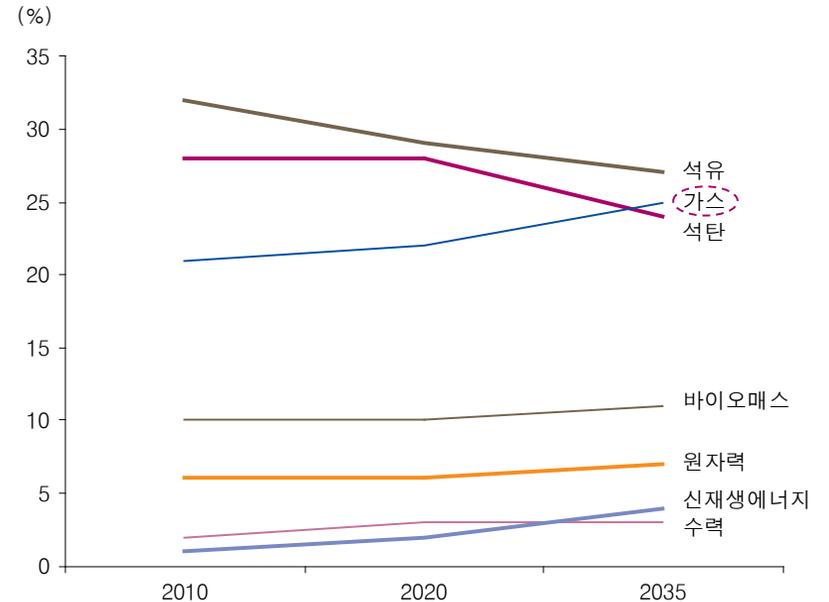
- 2005년 텍사스 바넷에서 셰일가스 개발 성공 후, 채굴 기술 발전으로 미국 셰일가스 채굴 비용은 천연가스 수준에 근접
- 셰일가스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,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가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
- 2016년 이후 미국은 가스 수입국에서 가스 수출국으로 전환될 예정. 향후 에너지 시장 패러다임 변화를 셰일가스 선도국인 미국이 주도할 것으로 판단

국가별 천연가스와 셰일가스 평균 생산 비용



참고: IEA(2012), Golden Rules for a Golden Age of Gas 자료 재인용
자료: IEA

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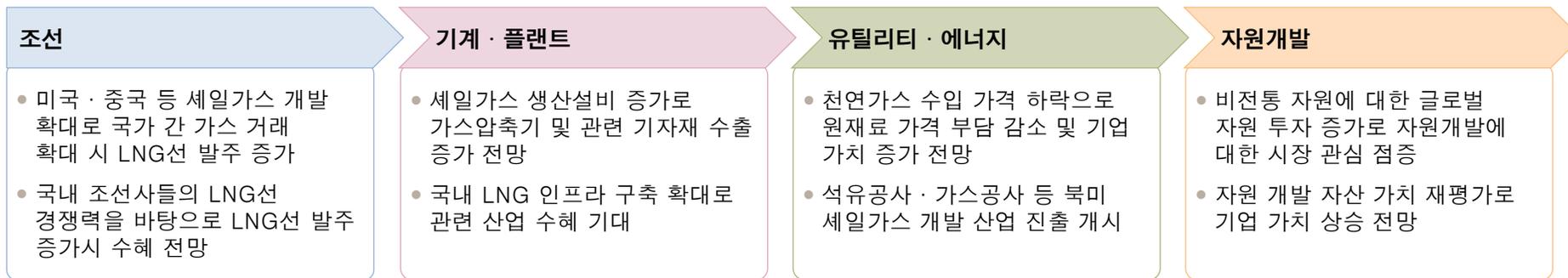


참고: 낙관적인 셰일 가스 개발론 가정하의 세계 에너지 수요
자료: IEA

투자 아이디어: 플랜트 · 유틸리티 · 자원개발 등 관심

● 셰일가스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주목

- 셰일가스 시장 확대는 국내 조선 · 기계 및 플랜트 · 유틸리티 · 자원개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



분류	종목	주요 사업 내용
조선	대형 조선 3社	미국 LNG 순수출이 기대되는 2016년 이전, LNG선 발주 증가로 현대 · 삼성 · 대우 등 대형 조선 3社 수혜 기대
	삼성테크윈	최근 한국가스공사와 LNG용 BOG압축기 공급 계약 체결. LNG 시장 확대 시 가스압축기 등 에너지 장비 수요 증가 수혜 전망
기계 · 플랜트	우림기계	셰일 가스 시추 시 필요한 산업용 압축기 제조 업체. 북미 수출 증가세로 실적 모멘텀 부각
	휴스틸	셰일 가스 운반용 강관 제조 업체. 최근 북미 등 해외 수출 증가로 Capa 증설 완료 및 성장 모멘텀 본격화 기대
	비에이치아이	LNG복합화력발전용 폐열회수장치(HRSG) 제조 업체. 가스 발전 시장 확대 시 수혜 전망
	한국전력	현재 발전연료비 중 LNG발전비용이 40% 이상. LNG발전 단가 하락 시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 감소로 실적 개선 기대
유틸리티 · 에너지	한국가스공사	LNG 도입 단가 하락 시 미수금 부담 감소로 재무 구조 개선 기대. 북미 셰일가스 개발 참여 등 자원 개발 부문 경쟁력 부각
	한국석유공사	미국 텍사스주 이글포드셰일오일 지분 투자로 향후 셰일 가스 등 자원 개발 경쟁력 확대 시 기업 가치 상승 전망
	SK가스	LNG 도입 단가 하락 시 유통 마진 확대로 실적 개선 기대. 석유화학사업 부문 사업 진출 시 성장 모멘텀 부각 전망
자원개발	SK	LNG 시장 확대 시 SK이노베이션 · SK E&S 등 자회사를 통하여 LNG 밸류 체인 내 경쟁력 강화 및 성장성 부각 기대
	GS글로벌	미국 셰일 광구 지분 인수로 자원 개발 본격화 시 자원 개발 자산 가치 증가 및 해외자원개발 업체로의 기업 가치 상승 기대
	대우인터내셔널	미얀마 가스전 생산 단계 진입으로 가스전을 통한 이익 안전성 확보 및 기업 가치 재평가 기대 점증

자료: 삼성증권

오바마와 롬니의 교집합 종목

종목코드	종목명	시가총액 (십억원)	P/E (배)	P/B (배)	ROE (%)	외국인 지분율 (%)	상대수익률 (%p)			절대수익률
							1개월	6개월	12개월	1개월
Made in America, Again!										
A011210	현대위아	4,438	10.9	2.4	24.2	14.6	(2.8)	13.4	18.1	(8.0)
A019210	와이지-원*	300	5.1	n/a	21.1	10.6	2.1	0.0	(19.9)	(3.1)
A081000	일진다이아*	73	7.4	1.1	15.1	0.3	(15.4)	(14.0)	(36.0)	(20.7)
주택경기 활성화!										
A009450	경동나비엔*	134	n/a	n/a	n/a	3.3	15.0	43.6	77.5	9.8
A036890	진성티이씨*	194	13.0	2.8	24.0	2.2	(11.8)	6.8	5.5	(17.0)
A006260	LS	2,872	11.0	1.2	11.6	13.0	(2.7)	22.1	12.8	(8.0)
세일가스 혁명!										
A012450	삼성테크윈*	3,034	17.7	1.7	9.5	17.0	(6.0)	(13.0)	(6.1)	(11.2)
A003600	SK	6,974	5.4	0.5	10.9	32.3	0.7	21.2	(0.7)	(4.5)
A001250	GS글로벌*	299	8.4	1.2	14.9	3.1	(1.5)	17.5	4.3	(6.7)

참고: 10월 29일 기준, * 동사 비커버리지 종목/ 일진다이아는 IFRS 별도 기준/P/E · P/B · ROE는 2012년 예상치/상대수익률은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률 기준
 자료: Dataguide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10월 29일 현재 삼성테크윈과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.
- 당사는 10월 29일 현재 삼성테크윈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.
- 당사는 10월 29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10월 2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create[▲] with you 삼성증권 SAMSUNG

-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50번지 삼성본관빌딩 14층 투자정보팀 / Tel: 02 2020 8000
- 삼성증권 지점 대표번호 1588 2323 / 1544 1544 ■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